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0월 6일(주일) 제1264호



2019 온누리부흥축제 ‘인생의 의미’

10월 16~19일 저녁 7시 30분

2019 온누리부흥축제 ‘인생의 의미’가 막 오른다. 10월 16일(수)부터 19일(금)까지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라비 재커라이어스(Rabi Zakeria, 세계적 기독교 변증가)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인가?’, ‘인간 존재의 의미는?’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부흥축제는 등록비가 없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지난 주일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번 온누리부흥축제를 계기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354

함께 미디어 선교!

온누리교회 창립 34주년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제출 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동참

오늘(6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이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창립 기념주일에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 선교라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오늘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CGNTV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CGNTV 안내데스크,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동참할 수 있다. 기존 후원자가 증액을 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신규 후원을 추가할 수도 있다.

CGNTV 임직원들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CGNTV 안내데스크에서 드림통(저금통) 수거 및 배포를 한다. CGNTV는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나눌 예정이다. CGNTV는 미디어 선교 채널로 유튜브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말씀, 예능, 짧은 영상, 강의 등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맞춤형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 각지 선교사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매일 선교사(인도네시아 J)는 “CGNTV를 시청하면서 너무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

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CGNTV를 끝까지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6면). 남영순 선교사는 “CGNTV는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떡과 국수를 대접한다. 서빙고는 1~4부 예배까지 국수를, 그 이후 예배부터는 떡을 나눠준다. 양재는 1~3부 예배까지 국수를, 4~7부 예배, 차세대 및 부속실 예배(POINT5, 하나공동체)는 떡을 나눠준다. 서빙고 차세대에서는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를 설치(구 골프장)하고, 서빙고와 양재 두란노서점에서는 전 품목 10%할인 판매한다. 후원 문의: 02-796-2243

홈페이지(<http://www.cgntv.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레위기 20:22-27(10월 10일 본문)

본문 주제: 기록(하나님의 기록하심) 다투는 삶에서 구별된 삶

영상 제목: (마음의 주인) 유기성 목사

내용: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oBn7WaYcBw>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 주일

사회선교 사역박람회 실시

오늘(6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촌역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과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오늘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는 사회선교부 사역박람회를 실시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온누리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의 일환이다. 온누리교회는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환경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2-3215-434

장애인부서 화재대피 훈련 실시

오늘 오전 10시 10분~11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오늘(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장애인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서빙고 사랑부(장애인예배공동체) 117명(학생 50명, 교사 67명)이 대상이다. 훈련 장소는 콘서트홀과 구 골프장이다. 장애인 화재대피 훈련은 상황 부여(훈련 상황 설명 및 연막탄 사용), 훈련 실시(계획 대피로 따라 이동), 강평(훈련결과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회 안내

일시: 10월 12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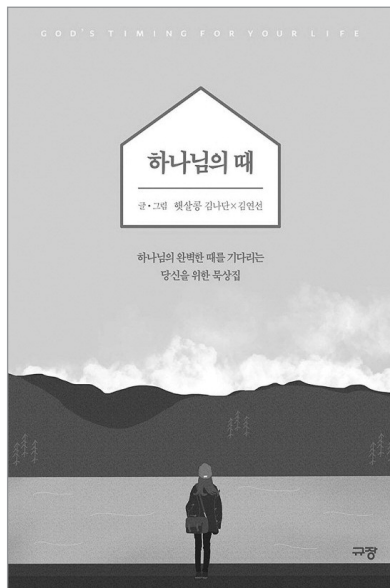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협동, 명예 장로

* 당회 이후 장로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예정



책 읽어주는 목사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
햇살콩 저 | 규장 | 15,000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매일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곤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책 저자의 이름은 햇살콩인데 신학을

전공한 김나단, 김연선 부부다. 이 부부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묵상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고민이 가득 적힌 글을 넘기면 다음 장에서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장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답장이 함축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묵상과 관련된 예쁜 그림과 글은 감동을 더해준다. 파트별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직접 묵상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예쁜 편지지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짧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글 하나 하나에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책 첫 번째 파트 제목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 놓아야 할 때’다. 저자는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욱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수록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여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사랑아, 기도가 안 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 이름을 계속 불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시 54:2).

두 번째 파트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할 때’다. 저자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생겼을 때’, ‘나를 타인에게 맞추려고만 할 때’, ‘교회에 실망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메마를 때’, ‘삶에 의욕을 잃었을 때’ 등이라고 소개한다.

세 번째는 파트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저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목회자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실망한 이들에게 “그들과 너 자신을 위해 작은 기도를 시작해보라”고 하시며 “너희가 나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분별과 거룩과 지혜를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삼 1:11).

마지막 파트 제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내 사랑아, 기도의 응답보다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렴. 내가 네게 침묵한다고 느끼는 그 시간조차 응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게로 와서 네 마음을 쏟아주어 고맙다. 쏟아낸 그 빈자리에 내 사랑을 가득 채워줄 테니 늘 너와 동행하는 나를 더욱 붙들렴”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누리교회 중남미사역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 확대되기를 기도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



네이라 크리스티안 목사
(스페인어예배)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답: “한국 교회는 요나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으로 이웃나라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닦기 위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동경 러브소나타가 한창 준비되고 있었을 때였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고 질문했다.

“목사님! 정말 일본 선교를 하시려나보네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지난 9월 22일 온누리신문에 실린 김철희 목사의 기고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

소가 생겼다. 그 장면이 생생하게 연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가서 말씀이 떠올랐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아 8:6).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다니 정말 나를 사랑하시려나보네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인간은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사랑에 상처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사랑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증거이다.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배신과 무관심으로 때로는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것이라고 반응할 때가 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신앙의 모습이 올

바르고 뜨거울 때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는 뒤로 한 발 물러선다. 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에 예수님이 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다. 실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예수님은 그 피로 한국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일본도 사랑하셨다. 일본은 1549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에 의해 천주교가 들어와 한때 부흥했지만 금교령 이후 오랜 기간 박해의 역사를 보내왔다. 우리는 그 시기에 수십만명의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매년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발로 밟아야 했고, 불상의 뒷면에 십자가를 몰래 새기고 합장하듯이 기도해야 했다. 250년 이상을 숨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카쿠레 기리시단’이라고 한다. 그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1873년 일본에서 기독교가 허용되었지만 그 시기 군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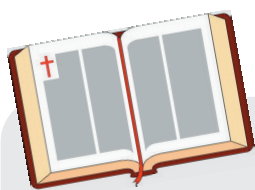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때 부흥의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도 국민의 0.4%정도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 교회는 요나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으로 이웃나라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닦기 위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이영선 목사
(오사카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회개(5) 스스로 부끄러워하라

겔 36:26~31

“과거의 수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은 본래 악하지 않고 선한데, 환경, 교육 등 외적인 요인이 부족해서 연약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개선되기만 하면 인간은 발전하고 선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와 정반대의 견해인 성경의 견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배반하여 악한 상태가 되었고, 인간의 외적 환경을 바꾸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 마음은 심판받아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교육, 문화, 환경 등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면 인간은 더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 없이는 인간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명령만 하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던 일에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기에 끊어내 버려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무리 결심해봐도 더 악화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고 받아들이실 때 우리의 타락하고 악에 물든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리되

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오심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악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할례란 신체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눌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렘 6:10).

이 말씀에서 ‘귀가 막혔다’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귀’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귀가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입과 귀입니다.

할례라는 단어를 마음에도 적용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굳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신 30:6).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골 2:11-12).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변화되는데, 골로새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그리

스도의 할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할례도 끊어내는 것이고,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인데, 그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뱃터조’,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이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25~27절).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함으로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돌은 생명이 없음으로 살아있는 존재와 서로 교통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죽어있는 인생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살처럼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는 세례예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참된 회개의 결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의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31절).

참된 회개의 결과는 자신의 죄와 가증한 행위들을 스스로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은 무능한 사람들이 느끼는 연약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켜야 구원의 길로 들어섭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젠더(social gender)’가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만큼은 절대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거짓된 사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많지만 그중 한 가지는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들이 서있는 지리적 위치, 외적 행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내적 행방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고, 그들이 부끄러움 앞에 직면한다면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나님의 낫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최초의 행동은 가리고 숨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기는데 명수가 되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10월 9일은 한글날

“목사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한글을 아끼고, 정신 기리는 것



오는 10월 9일(목)은 573돌 맞는 한글날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도 불리는 한글은 세종대왕 25년(1443년)에 완성해서 3년 동안 시험기간을 거쳐 세종 28년(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다. 한글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세종대왕이 주도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다.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이다. 한국의 보물 중의 보물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보물을 허투루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보면 한글 훼손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줄임말은 기본이고, 어느 나라 말인지 구분 못 할 외계어가 범람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싸용어’라는 말이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표현들은 또 어떤가? 사물에게까지 존칭을 쓰는 잘못된 높임말 사용하고 있다.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한글을 아끼는 것이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한글은 현존하는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기원과 만든 인물이 밝혀진 문자이다. 한글의 진가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메릴랜드대학 로버트 램지 교수는 “세계에서 이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고 극찬했고,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했다. 또 레어드 다이아몬드 교수(UCLA)는 과학전문지 <디스커버리>(1994년 6월호)에서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며, 또 한글이 간결하고 우수해 한국인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바로 한글이었다. 그 이유는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을 조합해서 약 8천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여 개 소리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글은 소리 나는 것은 모두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없다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 한글 뜻 아시나요?

그런데 우수하고 독창적이며 과학적이고 간결한 문자인 한글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

‘떡상, JMT, 별다줄, 낫넝겐, 비담, 좋못사...’ 흔히 말하는 ‘인싸용어’ 들이다. 인싸는 ‘인사이드’의 줄임말로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 인싸용어는 인싸들이 쓰는 용어를 뜻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신조어나 줄임말 등이 모두 인싸용어다. 떡상은 ‘가격이나 상태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 JMT는 ‘존

맛탱’ (굉장히 맛있다), 별다줄은 ‘별걸 다 줄인다’, 낫넝겐은 ‘not+넝겐(にんげん, 인간의 일본어)’의 합성어로 외모나 능력 따위가 아주 뛰어나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인간을 의미한다. 비담은 ‘비주얼담당’, 좋못사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다’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인싸용어는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보자.

“지금 TMI 때문에 갑분싸 됨요.”

“ㅇㅈㄹㅇ?”, “ㄹㅇ”, “ㅇㅈ?”, “ㅇㅇㅈ”, “ㅂㅂㅂㅂ”

TMI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의 약자이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알고 싶지 않은 과한 정보 때문에 분위기 싸해졌다’는 뜻이다. 두 번째 예문은 “이거 레알?”, “레알”, “인정하는거지?”, “응 인정”, “반박불가”라는 의미다.

요즘 청소년들의 SNS에는 이와 같은 정체 불명의 줄임말과 영어인지 일본어인지도 구분 못 할 외계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시대의 유행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고, 또 신조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줄임말과 출처도 모를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심각한 한글 훼손이다.

높여야 할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거스름돈 3천원 나오셨습니다.”, “이 구두는 불이 났으셔서 발이 편하세요.”, “이 상품은 품절되었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세일 중이세요.”

어디서 한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카페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말이 불편하기 시작했다. 비문법적

인 과대 존경 표현 때문이다. ‘-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어미다. 쉽게 말해 존재의 대상을 높이는 어미이다. 따라서 사물에 ‘-시-’를 붙이는 존대법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 상품은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주문하신 상품이 나오셨습니다”는 말은 무심코 들으면 매우 정중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고객보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높여 부르는 것으로 도리어 고객을 무시하는 말이 된다. 높여야 할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있다’와 ‘계시다’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로 동물이나 사물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할머니께서 집에 계신다”처럼 사람에게 사용해야 한다. “부탁의 말씀이 계셔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말씀’은 사람이 아니므로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탁의 말씀이 있으셔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목사님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는 시대다. 문제는 글을 자주 쓰고 올리면서 맞춤법 실수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하지... 라면 또 먹었어...”

어느 유명 가수가 자신의 SNS에 ‘어떡하지’를 ‘어떻하지’라고 써서 글을 올렸다.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해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라는 말이 줄어든 말이

다. 이 상황에서는 ‘어떡하지’ 혹은 ‘어떻게 하지’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지난 2013년에는 사진 한 장이 뜬금없이 ‘아이돌 출산설’을 만들었다. 좋아하는 가수가 아픈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고 팬이 댓글에 다 ‘낫다’가 아니라 ‘날다’라고 쓴 것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아이돌 출산설로 이어진 것이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도 너무 많다.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 제27항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몇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다. ‘며칠’의 경우 ‘몇+일’로 분석하여 그 표기가 ‘몇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이 밖에도 곱빼기(←곱배기), 곁땀(←겨땀), 게거품(←개거품), 범칙금(←벌칙금), 띄어쓰기(←띄워쓰기), 족집게(←족집게), 단말마(←단발마) 등이 있다.

언어(말)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한글 덕분이다. 분단국가이면서도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 일컫는 것도,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 주가 분리운동을 하는 것도 언어 때문이다. 총격적인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6천여 개인데 2주에 한 개 꼴로 소멸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소중한 우리 한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한글을 아끼는 것이고, 그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잠 4:2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글 아끼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언어 사용에 세심하게 주의해서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해야



박상학 목사
(양재 차세대,
前 고교 국어교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즉, 언어는 해당 사회의 모습이나 특성을 드러내며, 경우에 따라 언어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언어에는 지역, 인종, 나이, 계층, 신분, 성별, 직업, 이념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드러나 있다. 언어는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규칙성, 창조성 등 6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언어는 정보적, 정서적, 친교적, 명령적, 미적 기능 등 5가지 기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마다 사사건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그 어떤 제재가 필요 없는 대화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이나 정중함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나 언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올바른 높임말 사용법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계층화된 우리말의 높임말과 낮춤말, 그리고 예삿말이다. 적절한 높임 표현을 통해 상대를 존대하는 우리말의 섬세함은 이미 다른 언어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그 후한 평판에 걸맞지 않는 우리들의 민망한 실수 때문에 실소가 새어 나올 때가 있다.

첫째, 주체상실 존대이다. 얼마 전 건강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일이 있었다. 검진 코너마다 친절하신 직원의 안내가 있어 어렵지 않게 검진을 잘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의 친절하신 안내 멘트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수납 먼저 하고 오실게요”, “잠시 기다리실게요”, “피검사 하실게요”

‘-르게요’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말이다. “제가 할게요” 혹은 “제가 바로 갈게요”처럼 자신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날 때 써야 하는 어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오실게요”처럼 주체가 상실된 존대는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

이쪽으로 오실게요”는 “이쪽으로 오세요”, “잠시 기다리실게요”는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쪽으로 주차하실게요”는 “이쪽으로 주차하세요”로 순화시켜야 한다.

둘째, 천사(天使)행세 존대이다. 우리말 ‘돕다’는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탠다는 뜻이다. 혹은 위험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계산대에서 흔히 직원이 손님에게 “손님,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고를 한다. 직원이 손님을 대신해서 돈을 내주는 상황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직원이 마땅히 할 일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는 “주문받겠습니다/주문하시겠습니까?”,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는 “계산하시겠습니까?”로 말해야 적절한 어법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언어임을 인정한다면,

언어를 보듬고 아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

셋째, 사물(事物) 존대이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과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물에게까지 높임선어말 ‘-시’를 남용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고객님, 그 상품은 방금 품절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상품이 있으세요”와 같은 흡쇼핑 상담원의 전화응대는 자사 상품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상품을 고객 위에 올려놓는 우를 범하는 모양새다. 이외에도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으세요”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세벽기도회 기간이세요”는 “~기간이에요”, “음료 나오셨습니다”는 “음료 나왔습니다”로, “주차비 3천원이세요”는 “주차비 3천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장로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까”는 “장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로 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용해야 옳다

우리말에는 총 세 가지 높임법이 있다. 첫째, 존경법이다. 주어를 높임으로써 행동

의 주어를 존경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체 존대법이다. 둘째, 겸양법이다. 겸손하게 사양하여 대상을 높이는 객체 존대법이라고도 한다. 셋째, 공손법이다. 상대를 높임으로써 상대를 공손하게 대하는 높임법이다.

“저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에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 교회에 갔더니 환경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자발적 불편함을 실천하지는 광고가 나왔다. 캠페인 자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저희 교회’ 대신 ‘우리 교회’라는 정확한 대명사가 주체어로 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 광고를 말하고 듣는 모든 청중은 다 같은 교회 구성원이기에 마땅히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 이기 때

문이다.

‘우리’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따뜻한 우리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동네, 우리 엄마... 종종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정중한 표현으로 ‘저희’를 쓰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용법이다. 위아래가 없는 국가 간에는 나라 앞에 결코 ‘저희’를 놓을 수 없다. 상대가 외국이나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배어 있는 현학적(學術的; 스스로 자기 학문이나 지식을 뽐내는)인 표현은 자칫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교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경’이란 말이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본다. 교단 총회 등 교계 지도자들 모임에서 총회장을 지낸 분을 소개할 때 ‘증경총회장 000입니다’라고 한다. 증(曾)은 ‘이미, 일찍이’, 경(經)은 ‘지내다’로 ‘이미 지냈다’는 말이다. 증경(曾經)이란 말은 중국 당나라 노조린이란 사람이 쓴 고시에 처음 등장한다. 그의 장안

고의(長安古意)라는 시에 ‘증경학무도방년(曾經學舞度芳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찍이 춤을 배우느라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의미다. 전임 총회장을 비롯해서 전임자를 존중하고 높이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젊은 시절 춤 배우느라 시간 보냈다’는 증경이란 단어가 어울릴까? 더욱이 이 단어는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다. ‘증경국무총리’, ‘증경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증경이란 말을 ‘전임’ ‘이전’이라는 말로 고쳐 ‘전 총회장’, ‘전 노회장’으로 부르면 된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들 문화의 잔해는 기독교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당수의 불교 및 유교 용어들이 교회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이다.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면서 유족을 위로할 때 흔히 하는 인사말이다. 장례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적 표현이 아니다. ‘명복(冥福)’은 불교에서 온 말이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명부(冥府)라고 하는데, 명부에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살고 있고 죽은 사람은 이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명부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불교의 내세관에서 비롯된 불교의 신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글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반포일과 만든 이,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문자이다. 많은 이들이 그 독창성과 우수성에 감탄한다.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언어이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가득 찬 문자이다.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알파벳이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K-POP의 흥행 원인도 사람의 섬세한 마음에 지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글의 저력에 있다고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글을 바르게 표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세종대왕의 후예로서의 당연한 마음가짐 아닐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언어임을 인정한다면 언어를 보듬고 아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

꿈속에서만 그리던 바로 그날...

탈북민을 위한 아주 특별한 결혼식

수원 온누리교회가 멋진 결혼식장으로 탈바꿈했다. 교회 로비에 진열된 웨딩사진이 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랑들은 멋진 턱시도를, 신부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다. 신랑신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누가 봐도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꿈속에서만 그리던 결혼식인데 오죽 좋을까? 이 아름다운 결혼식은 돕는 손길들 덕분에 더 특별하고 감동적이었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팀은 교회를 아주 멋진 결혼식장으로 꾸몄다.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날의 주인공인 탈북민 신랑신부들의 가족이자 친지가 되어 누구보다 뜨겁게 축하했다.

수원 온누리교회 탈북민 합동결혼식 개최

송민음(가명), 유은혜(가명) 부부는 부부가 된지 2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중국에서 만나 살림을 차렸다. 한국에 온지는 15년이 지났는데 한국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수원 온누리교회 북한선교팀과 만남을 이어갔다. 특히 정일선 권사와 유은혜 자매는 딸과 엄마처럼 각별하게 지냈다.

유은혜 자매는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드레스를 고르고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순간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다. 송민음 형제도 마찬가지다. 결혼식 당일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다”고 했다. 21년 동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결혼식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여보, 2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드레스를 입은 당신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기쁩니다.”

정일선 권사는 이날 결혼식에 한복을 곁들여 차려 입고 참석했다. 유은혜 자매의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정말 애썼는데 곧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은혜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기로 했거든요. 은혜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부부가 되렴!”

백바울(가명), 진화영(가명) 부부는 딸이 셋이나 있다. 한국에 온지 6년이 지났는데 한국 생활에 적응하라 자식 키우라 결혼식은 엄두도 못 냈다. 그저 아이들이 바르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백바울 형제는 아내에게 드레스 한번 못 입혀준 게 정말 미안했는데 비로소 한을 풀었다.

“여보, 애들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삽시다. 사랑해요.”

살면서 결혼식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또 있을까? 지난 9월 28일(토) 수원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그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식보다 더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 탈북민 다섯 가정이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가 된지 2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가정도 있었고, 아내에게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혀 준 게 너무 미안했던 남편이 한을 풀기도 했다. 이 결혼식이 무엇보다 특별했던 이유는 신랑신부가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홍하영 기자



탈북민을 위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수원(위)과 남양주(아래)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박진(가명), 이수진(가명) 부부는 올해 1월 한국에 온 파릇파릇한(?) 탈북민이다. 하나원을 나와 4월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말만 통할 뿐이지 아는 게 없어서 정말 답답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축축해졌다. 박진 형제에게는 꿈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게 불가능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말만 통할 뿐이지 모든 게 새로워서 당황을 많이 했어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남부럽지 않게 좋은 가정 만들고 살고 싶어요.”

탈북민 협동결혼식은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인도했다. 이기훈牧사는 “떠돌이처럼 거처를 옮기면서 부부와 부모 역할 하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이번 합동결혼식을 계기로 탈북민들을 위한 가정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양주 하나예배의 소망 ‘탈북민 커플들을 위한 결혼식’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도 탈북민을 위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 ‘행복한 하나예배(이하 하나예배)’에서 탈북민 커플을 위한 결혼식을 열어줬다. 그 주인공은 정충혁, 강설경 부부다.

강설경 자매는 4년 전 한국에 왔다. 정착도 우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임순이 집사(행복한 하나예배)와 그때 만났다. 임순이 집사의 전도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하나예배를 드리게 됐다. 강설경 자매가 임순이 집사와 하나예배의 도움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즈음 남편 정충혁 형제가 한국에 왔다.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두 사람은 탈북민 모임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 북한에 남은 서로의 가족들을 도울 만큼 깊은 관계가 됐다. 둘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던 강설경 자매는 정충혁 형제를 하나예배로 초대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던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지난 9월 28일, 두 사람의 부모는 분명 북한에 있는데 혼주석이 채워져 있었다. 신부의 어머니 자리에는 임순이 집사가 앉았다. “꼭 앉아 달라”는 강설경 자매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강설경 자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남들이 보면 엄마와 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다. 임순이 집사는 강설경 자매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 맛있는 반찬거리가 생기면 꼭 따로 챙겨주곤 했다. 임순이 집사의 사랑 덕분에 강설경 자매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순이 집사에게도 강설경 자매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됐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강설경 자매를 만나면서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순이 자매는 그 누구보다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축하했다.

“하나님이 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시려고 설경이를 제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설경이는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에요. 설경이가 좋은 짝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 게 참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준 사람은 오현정 집사(하나예배 팀장)다. 오현정 집사는 하나예배 탈북민들 사이에서 ‘아빠’라고 불린다. 그 정도로 탈북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랑 혼주석에는 하나예배 담당 장로 임현태 장로와 이화영 권사 부부가 앉았다. 탈북민을 위한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설 정도로 탈북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부부다. 정충혁 형제와 강설경 부부의 결혼식을 내 자녀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충혁이와 설경이의 결혼은 하나예배에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부부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이 가정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충혁 형제와 강설경 자매가 큰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준 하나예배에 감사인사를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나예배는 모든 탈북민 커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소망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탈북민 커플들의 결혼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온누리복지재단이 걸어온 20년

1. 태동기와 성장기(1999년~2009년)

2. 성장기 넘어 성숙기(2010년~2019년)

나누는 기쁨! 행복한 동행!

온누리복지재단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변화

온누리복지재단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지난 20년 세월을 되돌아봤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두 번째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튜디오를 통해 사진을 배우고 있는 노인들.

2000년대 후반 온누리복지재단의 사역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2009년 4월 8일 개관한 용산구립청와노인복지센터다. 용산구립청와노인복지센터에 다니는 어르신 150여 명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작은 저금통을 기부한다. 그 저금통에는 돈이라는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어르신들의 큰 사랑이 담겨있다.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이 더 있다. 2011년 5월 26일 운영을 시작한 '안성 농업실습지'다. 안성 농업실습지에서 재배한 감자, 양파,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시설에 보내고 있다. 그 나눔의 주인공은 바로 위기청소년, 군

로 장애인, 여가 노인, 치매 및 중풍 어르신, 쪽방촌 주민들이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서울시로부터 우수법인 인증

복지서비스 제공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온누리복지재단은 후원금이나 물품후원 등 일괄적인 복지서비스를 넘어서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 온누리복지재단은 2014년 10월 1일 군포시에 '꿈의집지역아동센터'를 개원했다.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더 이상 혼자 놀이터나 공원 등지에서 방황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과 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8

년 8월 23일에는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온누리청소년센터를 신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와 꿈의집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7월 1일에는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에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개관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자립과 직업훈련을 돕고 있다.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나가야만 했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교회 내 사역팀과 연계된 발달장애인과 새터민을 위한 사역도 시작되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2010년 6월 온누리사랑채, 2014년 2월 온사랑합창단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체결한 이후 채와 합창단의 행정 및 사무적인 일을 책임지며 발달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또한 한터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새터민 청소년 그룹홈도 시작했다. 2016년 6월부터 LH공사, SH공사를 통해 남, 여 각각 1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으며 그 제반 행정사무도 돕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 3월 8일 온누리요양센터의 사랑동을 준공한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모실 수 있게 됐다. 2018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골든클럽(노인들의 재능이나 경력 등을 살려 강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른 복지관의 강사로 파견하는 프로그램), 드림스튜디오(노인들이 사진 찍는 기술을 배

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장수사진 등을 찍어주는 봉사하는 자원봉사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초구립노티나무늬터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여가 복합시설이다. 이 시설에서는 정보소외현상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VR 체험, 유튜브 1인 방송 체험, 키오스크(무인 정보단말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사역도 문이 열렸다. 온누리복지재단은 2018년 2월 1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주거안정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2018년 8월 1일에는 KT의 지원을 받아 '돌다릿골 빨래터'를 개소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불 빨래 등을 돕고 있다. 돌다릿골 빨래터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에도 힘쓰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을 인정받아 2018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우수법인 인증을 받았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 거주 시설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신중년을 위한 50+ 센터도 운영 할 계획이다. 인생이모작을 계획하는 세대들의 생애설계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사회공헌과 지역활동의 주체로 성장시키며, 건강한 노후와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사역칼럼

위기의 회전문을 함께 밀고 나가 줄 친구 '온누리복지재단'



정호욱 목사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온누리복지재단 사역을 감당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는 정말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 대부분이 위기의 회전문 앞에서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막혀 있던 유리문을 열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전문에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활과 자립사역이다.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 자활과 자립사역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이다. 그들이 거리와 쪽방촌을 벗어나 안정된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일의 가치를 찾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로 나올 수 있다. 노숙인들이 간단한 기술을 익혀 일할 수 있는 돌다릿골 빨래터, 물 없는 세차장, 안성 농업실습지

같은 사역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정체되어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를 바란다. 청년들에게 존경받으며 자신이 가진 지혜를 전수할 줄 아는 노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이길 알아야 한다. 노인들에게 변화되는 세대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 제자리에 주저앉은 노인들이 없도록 지혜의 자활이 필요하다.

온사랑합창단 단원들과 예순화자들은 사회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계를 제시하는 사회분위기를 깨

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온사랑합창단원들은 노래로, 예순화자들은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가 변화되기도 하고,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도 한다. 온사랑합창단 단원들은 현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이들이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위기의 회전문 앞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함께 밀고 나가줄 친구가 절실하다. 온누리복지재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늙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온누리교회 첫 번째 장로 은퇴식에서 하용조 목사가 한 말이다. 하나님의 꿈은 나이 들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도 늙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영미(64세), 김성민 선교사(69세)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사로 가까이 헌신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위로하는 치유자, 희망을 꽃 피우는 전도자로 살고 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새 생명이 움트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위로하는 치유자, 희망 꽃 피우는 전도자

인생의 후반전 선교에 헌신한 장영미, 김성민 선교사



장영미 선교사(셋째줄 왼쪽 끝)와 김성민 선교사(셋째줄 가운데)는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와 어쩔 저렇게 인상이 좋으실까?’

장영미 선교사와 김성민 선교사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다. 유독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더 특별했다. 따뜻함과 행복함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을 각기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만났는데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 표정에서부터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선교다.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 옆에서

“할머니의 일을 대신 할 다른 사람들이 오면 다시 올게.”

떠난다는 할머니의 말에 아쉬움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11살짜리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장영미 선교사가 한 말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두고 장영미 선교사가 꼭 가야 했던 곳이 있었다. 바로 선교지다. 장영미 선교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영미 선교사의 첫 번째 사역지는 중국이었다. 중국으로 갈 때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다. 평생은 은행에서 일한 장영미 선교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조기퇴직 했다. 퇴직 하고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신학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 선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영미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밀어 붙이셨다. 한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중국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 발급 받기 어렵다는 비자도 한 번에 받게 하셨다. 그렇게 떠밀리듯 간 중국에서 하나님은 장영미 선교사를 다듬어 가셨다.

장영미 선교사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사로 사역했다. 평생 누구를 가르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고, 가르칠 학생들 중에는 한국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장영미 선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섬김뿐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함께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정리를 하면서 본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대화하고 어울려 지냈다. 꼬박 2년을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지내다보니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산만 하던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책을 봤다. 어리숙한 선생님이라며 놀리던 아이들이 장영미 선교사의 말에 조금씩 귀 기울이고 있었다.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자세를 배울 즈음 현지사정으로 중국선교를 갑자기 종료해야 했다.

선교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영미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지를 열어주셨다. 두 번째 선교지는 스리랑카였다. 스리랑카에서 장영미 선교사

는 한국어 교사 사역은 물론이고,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처음 2~3년 동안에는 행정과 재정을 처리하는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사역이 많아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해졌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친구가 되었다. 장영미 선교사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정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까이 꺼내 놓으며 친구들을 위로했다. 남편을 잃고 밤낮으로 울면서 슬퍼하는 동료 교사에게 다가가 자신도 같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자궁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한 동네 주민을 위해서는 밤새 싱할라어(스리랑카에서 사용하는 인도아리아어)를 달달 외워 가서 기도해주기도 했다. 장영미 선교사의 진심이 담긴 사랑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 장영미 선교사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그들 곁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제 삶을 보여주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주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스리랑카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

눈과 발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씨를 잘 가꿔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있다. 김성민 선교사가 그렇다. 김성민 선교사는 다른 사람들이 뿌려 놓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꿔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다.

김성민 선교사는 34년 동안 이어온 미국에서의 잘 나가던 회사생활을 접고 60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다. 인생 후반전에는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민 선교사는 선교를 준비하며 미국에서 5년 동안 한의학학을 공부했다. 의료기술을 가지고 선교지를 다니며 사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은 김성민 선교사의 달란트를 선교에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김성민 선교사는 2014년 한국에 돌아와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선교를 교회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힘쓰고 있는 교회이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사 자격을 얻어 2017년 스리랑카 기술학교 담당자로 파송을 받았다. 스리랑카에 도착하여 현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는지를 깨달았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익힌 경영과 인재관리 경험이 온누리국제학교와 기술학교에 꼭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성민 선교사는 국제학교의 크고 작은 경영 문제부터 해결했다. 그리고 국제학교와 함께 있던 한국어학원의 위치를 스리랑카의 교육도시 ‘감파하’로 옮겼다.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지 교사들과 선교사들이 그에게 ‘청년’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 김성민 선교사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학원에서 공부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지역 공립고등학교 교장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리더십들을 만나 한국어학원을 소개하고 추천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학기를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갔다. 졸업생 중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나타사라는 친구는 온누리교회와도 인연이 깊다. 나타사의 아버지 수메다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받아 신학공부를 마치고 스리랑카의 빈민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타사가 한국어학원을 찾아왔다. 등록기간이 2주나 지난 시점에 와서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나타사는 연습과 복습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나타사를 눈여겨 보던 김성민 선교사가 한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KGSP)’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고, 세 차례에 걸친 추가면접과 심사 준비에도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힘을 보탰다.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나타사는 스리랑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올해 2월 한국에 왔다. 현재 경희대학교 여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김성민 선교사는 나타사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더 많은 스리랑카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날을 꿈꾸고 있다.

“나타사가 한국에 장학생으로 들어온 것이 기술학교 학생들과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 스리랑카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종료

지난 9월 30일(월)부터 어제(5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종료됐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기도문(마 6:9-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도들은 새벽제단에 나와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었다.

원헌숙 권사(중종로공동체)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에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

매우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성원 성도(주차사역팀)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계기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순수한 열정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10월 8일 오전 11시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린다. 이날 감사예배는 축사, 미션 및 비전 선포식, 표창,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온누리복지

재단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온누리복지재단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02-793-9655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키즈페스타에서 화해와 우정을 나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

일본인 전도문화축제 ‘키즈페스타’ 370명 참석

지난 9월 28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일본어예배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전도문화축제 ‘키즈페스타’를 개최한 것. 일본인 266명(어린이 153명, 부모 113명)과 일본어예배 지체들까지 370여 명이 참석했다.

키즈페스타는 패밀리 음악회, 야외 프로그램, 사랑의 이벤트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김삼인 전도사(일본어예배부)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임을 느낀 집회였다”고 했고, 배수영 자매(일본어예배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다”며 감격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카야마 홍수 피해 복구 보고회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실행위원들 한국 방문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실행위원들이 ‘오카야마 홍수 피해 복구 보고회’를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지난 27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오카야마 홍수 피해 복구 보고회가 있었다.

오카야마는 지난해 7월 홍수 피해를 입었다. 온누리교회는 일본어예

배, 대학청년부, NGO 더멋진세상 연합 긴급복구팀을 꾸려 현지에 파견했다.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센터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구슬땀 흘렸다. 쿠사이 타쿠히로 목사는 “현지 교회가 연합해 다양한 분야로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창조신앙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시 30분 홍보관, 양재는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시 30분 강의동 302호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서빙고 010-7292-2349

양재 010-8906-4940

15기 일.하.세. 아카데미 모집

제15기 일.하.세. 아카데미가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경찬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3504-8394



구마모토 기 · 도 · 제 · 목

- 10월 6일(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 10월 7일(월) 한일양국의 언어, 문화, 상황을 넘어 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 10월 8일(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영적 부흥 디딤돌을 세우도록
- 10월 9일(수)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관능과 지혜가 넘치게 임하도록
- 10월 10일(목) 한일연합기도모임을 통해 영적 기류 변화가 일어나도록
- 10월 11일(금) 러브소나타의 출연진들과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 10월 12일(토)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운데 새하얀 나뭇잎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7357	성형규	SNS	1137383	모재영	푸른누리	1137422	김혜경	양지 서누리	1137452	임다희	SNS
1137358	박신실	SNS	1137384	정다희	푸른누리	1137423	차형준	양지 서누리	1137453	이정윤	SNS
1137359	김원호	이촌	1137385	이상진	부천 믿음	1137424	강유선	인천 동누리	1137454	장지원	서빙고
1137360	이마리나	온누리미션	1137386	이종익	일산	1137425	이매란	남양주A	1137455	이동현	J4U
1137361	최강구	온누리미션	1137387	권오형	Point5	1137426	김호수	양지 동누리	1137456	피현준	J4U
1137362	심재삼	양재	1137388	이예인	일산	1137428	하태원	성북	1137457	유이랑	J4U
1137363	천민주	이촌	1137390	김은진	Sb릿지	1137429	김보민	하늘	1137458	유혜원	J4U
1137364	이정애	평택	1137391	장희석	인천Web	1137430	최인현	하늘	1137459	홍민지	J4U
1137365	김진숙	수원 동누리	1137392	유재은	인천Web	1137431	조수아	하늘	1137460	이다연	J4U
1137366	하은지	수원 SEED	1137393	김도균	Sb릿지	1137432	이현지	하늘	1137461	백성경	J4U
1137367	전명영	수원 북누리	1137395	모종선	송파A	1137433	이승재	하늘	1137462	조가람	J4U
1137368	김태윤	Sb릿지	1137396	이연정	성동광진	1137434	김선미	서빙고	1137463	이선영	J4U
1137369	왕승희	양재	1137403	황태환	J4U	1137438	윤보현	이수	1137464	현주영	J4U
1137370	김중호	남양주B	1137404	이하나	강남D	1137439	조은숙	대전 남누리	1137465	MA XIAOYANG	중국어예배
1137371	전대진	양재	1137405	정예지	이촌	1137440	문보월	대전 남누리	1137466	한원식	마포
1137372	백성은	강촌	1137406	홍주영	SNS	1137441	최길순	마포	1137467	SONG YU-HENG	중국어예배
1137373	양준영	여호수아	1137407	김새롬이	서초B	1137442	김희재	SNS	1137468	설정식	문당A
1137374	김태균	여호수아	1137413	안도건	서초C	1137443	김효정	SNS	1137469	임정자	문당A
1137375	한수연	여호수아	1137414	전완구	대전 남누리	1137444	김수민	SNS	1137470	황재영	강서
1137376	김재은	여호수아	1137415	서상희	고양은평	1137445	배지혜	SNS	1137471	곽동현	여호수아
1137377	윤혁준	여호수아	1137416	김유정	서초B	1137446	오호진	SNS	1137472	진승환	여호수아
1137378	심애리	여호수아	1137417	김명자	강남B	1137447	홍원영	SNS	1137473	김상열	여호수아
1137379	이보인	여호수아	1137418	사복문	대전중국어예배	1137448	김하린	SNS	1137474	박기림	여호수아
1137380	김승현	여호수아	1137419	오영진	양지 서누리	1137449	김민솔	SNS			
1137381	임종민	여호수아	1137420	이영신	양지 서누리	1137450	박규태	SNS			
1137382	이주연	일산	1137421	정동하	양지 서누리	1137451	박슬아	SNS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0월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건강한 기도자를 세우는 ‘기도학교 저녁반’이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중성홀에서 진행된다. 관계

는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일까?, 본성을 인정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하기,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습습 등을 주제로 김현미 목사(GIM 대표)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원. 문의: 02-2078-3456.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0월 세미나

기도학교 저녁반, 10월 7일~11월 4일

■ 일.하.세. 아카데미 간증



/ 김성주 팀장(일.하.세. 아카데미)

크리스천은 이런 세태를 거슬러야 한다

“직원이 부족해서 큰일이야”, “일할 만한 사람 어디 없나요?”, “채용공고를 내도 통 지원자가 없네” 등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모이면 흔히 하는 대화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라는 데 이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다. 정작 일터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야단이고, 취업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진로상담 전문가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해라”,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 나는 질문하고 싶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적성과 좋아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보기 좋고 형식에 맞춘 자기소개서와 오로지 취업을 위해 쌓은 스펙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할까?

사람들은 왜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보다 무슨 일을 하고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일자리의 기준을 둔다. 조금이라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일이 얼마나 보람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로지 월급 많이 주고 여러모로 환경이 좋은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에만 종사하고자 하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직장 and 직업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일.하.세. 아카데미 교재 성경적 직업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수입이 적은 직업은 자신의 존엄과 위신을 깎는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천하 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아예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 직종과 육체노동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크리스천은 이런 세태를 거슬러야 한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에 내재된 존엄성과 고귀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일의 유용성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 일해야 한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일.하.세. 사역팀의 목적이고, 일.하.세. 아카데미에서 토의하는 주제들이다.

15기 일.하.세. 아카데미
일정: 10월 12일~11월 9일 오후 1시
장소: 양재 도곡교육관 경천홀
문의: 010-3504-8394

■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간증



/ 이믿음(가명, 소망교도소 재소자)

만남이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모태신앙이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좋았다.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참 행복했다. 그런데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변했다. 부모님을 향한 반항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어리석었던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함과 지루함의 연속이었다. 순간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 돈과 성공이 두려웠다.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던 어느 날 나는 큰 잘못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곳 소망교도소에 오게 되었다. 교도소에 와서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후에야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다. 25년 동안 나는 아버지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 내가 아버지께 속죄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미친 사람처럼 써내려갔다. 내 편지를 받아보신 아버지도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적어 보내셨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한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삶에 평온이 찾아왔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계획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랍고 감사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일대일 양육자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신 분, ‘만남이 축복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백승목 성도(신용산공동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모든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다. 내 눈 앞에 보이는 이 예쁜 아이는 이 모습 그대로 커가고, 나도 남부럽지 않은, 아니 너무나도 현명한 엄마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 내면의 바닥까지 보게 되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자책 없는 엄마가 되는 것 같아 삶에 회의감이 몰려왔다. 그때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조차 너무 미안해서 미처버릴 것만 같았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않으면, 이 아이들도 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집에서는 도저히 말씀묵상이 안 되어 교회에 와서 세미나라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헬로맘스쿨 ‘성경여성인물들과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이 눈에 들어왔다. 성경 속 여성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냈는지 궁금해졌다.

첫 강의에 등장한 ‘생명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을 닮도록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의 가문의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아이들은 하나님의 명문 가문의 자손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 내 심장을 내리쳤다. 맞다. 지금껏 내가 자라온 환경과 열등감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내가 짙어진 무거운 짐은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명문 가문의 아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작품에 나의 열등감으로 상처를 내지만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자라날 것이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 1:11).

한나의 고백처럼 나 역시 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한다. 훗날 키와 지혜가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뜻 깊었던 ‘추수감사주일’



/ 이철원 총무(서빙고 이웃사랑팀)

성미와 하나님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회 로비에 쌓여있는 성미를 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 총무를 맡으면서 추수감사주일 성미를 나누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 각 공동체에서 보낸 쌀과 과일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드리는 단순한 사역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역이 짐으로 느껴졌다. 헌물이 적게 들어오면 양이 적다고 불평하면서 처음 해본 장부관리, 수백개의 쌀을 날라야 하는 부담감 등이 두려움과 갈등으로 바뀌었다. 내 얼굴도 날카롭게 변해갔다. 이러한 순간순간의 갈등과 두려움을 리더십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요일 밤 늦게 봉당에 성미를 올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지난해보다 10%나 늘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일 아침 다시 세어보니 지난해와 동일한 양이었다. 이미 목사님께서도 안내를 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당황했다. 수습방법을 찾느라 고민했다. 거기다 태풍의 영향으로 온종일 비바람이 몰

아친다고 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시작했다. 나눔이 시작되는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잘못 계수해서 부족했던 성미가 정확하게 채워졌다.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성미를 나누는 동안 단 한포대의 쌀도 젓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역팀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성미를 나누는 손길은 물론 받는 분들 모두 진정한 추수의 감사를 나눴다. 성미를 나누고 나서 계수한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포대가 적었다. 아무리 세도 채워지지 않는 1포대를 두고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 배려라고 결론지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미가 전달된 이름 모를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을축제였다고 인정하시니 피로가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리라 기대해본다.

장로칼럼

일곱 명의 인생 UP시키는 모임 '7UP'



임희창 장로
(차세대 대표장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33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내 기억 속에 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다. 교장으로 임기를 끝내기 1년 전 함께 추억을 쌓았던 일곱 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범죄가 더욱 난폭해졌고, 학교 내 폭행사건도 4배나 증가했다. 학교 현장에 있는 나는 그 사실을 더욱 체감했다.

왕따나 폭력이 없기로 소문난 우리 학교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곱 명의 남학생들이 있었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태도가 굉장히 산만했다.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나서서 야단을 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치우쳐 교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벅차보였다. 교직원 회의에서 이 학생들을 권고전학이나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특별 지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이때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곱 명의 학생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 챘는지 교장실에 방문한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일곱 명의 학생 중에서 두 명이 목회자 자녀였고, 한 명은 다문화가정 학생이었다. 그 아

이들과 대화하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마음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상담교사가 될 것이니 단톡방을 만들고 너희는 나를 대장님이라고 불러라.”

예상치 못한 나의 제안에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곧 단톡방을 만들어 소통하기 시작했다. 단톡방 이름은 ‘7UP’이었다. ‘일곱 명의 인생을 UP시켜주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해보라”는 과제를 주었더니 아이들이 구체적인 적용사례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에 방해하지 않기,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 단톡방에 올리기, 흡연량 줄이기, 시험성적 올리기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약속을 지켜나갔다.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7UP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했다. 흡연을 하던 학생들이 서서히 양을 줄이고, 한두 명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갔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말썽꾸러기들이 무사히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향해 품으셨을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비교대상이다. 혼란한 가치관과 상실된 정체성으로 아파하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 분명하다.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권사칼럼

작은 회복의 통로



곽옥용 권사
(서초B공동체, 양재상담센터)

상담을 준비할 때 우리는 갑옷을 입는다. 진정 나의 영적갑옷은 내 마음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것 같다. 이 영적갑옷은 상처 입은 우리의 무의식

과 마음을 온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의 삶이 다시 지어지고 길러지는 과정 같다.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을 때가 많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종종 상처받으며 나를 잃어버리기 쉬운 때 삶을 견딜 수 있는 자산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갖게 되는 무의식의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상담이론가 위니 컷은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환경과 발달하는 자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덟 명의 형제라는 너무도 풍성한 가지의 일곱 번째 작은 열매로 태어난 나는 존재감 자체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하는 동안 크게 야단 한 번 맞은 기억이 없지만 나의 마음 한편에는 ‘나는 아주 착한 아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항상 무의식 속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흡족하지 못했고, 방임된 것 같은 느낌에 늘 자신 없고 주눅 들었던 것 같다. 이런 내 무의식은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런 내가 변화할 수 있었던 첫 걸음은 말씀이었다. 결혼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성경공부하면

서 중학교 시절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무작정 외웠던 말씀들이 내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 너무 신기하고 달콤하기까지 했다. 내가 새로 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십여 년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무의식 속 상처를 다듬어주시며 길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양재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에서 지금까지 상담봉사를 할 수 있게 하셨다. 상담을 하다보면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부담되고 고민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진정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내편이 되어 주라”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내가 계속 달란트를 나누는 꿈을 꾸게 한다.

상담센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신다. 상담에서 만났던 한 청년은 유명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유년 시절의 상처로 타인의 시선에 대해 늘 불안하고 힘들어했다.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나 상황이 좋아도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상처의 크기에 따라 대처하는 힘도 달라진다. 때로는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잃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에 적대적으로 변해가기도 한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를 노크할 때 상담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께 편히 이끌면서 작은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향이 의심되고 흔들린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을 견디기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상담센터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아시고, 영원히 내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장래희망, 꿈을 생각해 본다. 필자도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가졌던 꿈은 공룡이 되는 것이었다. 동화책에서 약하고 아픈 공룡들을 도우면서 나쁜 일은 멀리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한 공룡의 모습이 어린 필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공룡만큼만 거룩하고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꿈꿨던 지난날이 생각난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꾸었던 꿈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는 것을 느낀다. 어릴 때는 꿈꾸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을 상상하며 힘을 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꿈꾸는 것이 낯설어지고, 공룡을 꿈꾸었던 아이는 어느새 한 가정을 이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꿈은커녕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이 세는 게 낯설어진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큐티 하던 중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본문을 만났다. 바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큐티 본문에는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들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고 당장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 열핏 보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꿈을 계속 꾸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꿈을 꾸기에 시간도 충분하고, 여유롭고, 상황과 환경이 좋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보냈을지는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며 꿈을 꾸었다.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도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꿈 꾸처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꿈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꿈을 노래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은 그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며,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이제 2019년이 100일이 남지 않았다. 지나간 한 해를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기고, 남은 올 한 해 또한 그렇게 바쁜 일상으로 지나쳐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꿈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남은 2019년과 다가올 2020년, 하나님과 함께 꿈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5) 스스로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고 가리는 데 기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넣으신 저항의 기능입니다. 악을 저항하고, 싫어하고, 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인간이 아무렇게 양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타락한 인간이 감추는 행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사람들로부터 숨고, 가족들로부터 숨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숨는 것은 일종의 분열 증상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참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잘 감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끄러운 삶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오두막’의 저자 폴 영은 “우리는 감추고 있는 비밀만큼 아프게 된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일입니다. 과거에 부정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계속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직면해야만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싫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어서, 감추고 감출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낫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었듯이 숨은 상태가 되면 병든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는 부끄러움의 실체에 직면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기는 만큼 그 수치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다른 부끄러운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 조지 맥도널드가 부끄러움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흔쾌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을 감추려 들지 않는 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한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과거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은 그럴싸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수치일 뿐입니다.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는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려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지만, 본질에 도달하려는 사람에게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진리의 욕조에 몸을 담그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수치스런 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고, 필요하면 공동체에 고백하며 부끄러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참된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심리나 상담은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분만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의 능력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가 주는 부끄러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사람들로부터 숨고, 자신으로부터 숨는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부끄러움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해주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두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부끄러워함으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저항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리라”는 능력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과거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되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소아시아 A국 선교여행기

우리 부부는 소아시아 A국 갈렙선교사로 3년 동안 헌신했었다. 작년에 선교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여름, 1년 3개월 만에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20일 정도 돌아보며 사역자들과 현지인 친구들, 주변 나라에서 온 이주민 교우들을 만나 서로 기쁨과 격려, 위로를 주고받았다. 3년 동안 대략 1년씩 살았던 3개 도시를 비롯해서 9개 도시를 바쁘게 돌아보았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 마주친 현지인 이웃들과 만나 반갑게 대화할 수 있었다. 한국인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몇 개 교회가 모여 매년 갖는 연합부흥집회에도 참석했다. 12개 교회 사역자 300여 명과 교우들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다.

한 한국인 사역자 집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이 나라 유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의 집이 있는 도시에 가서 그의 부모의 한대로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누렸다. 장미 향수와 라벤더 농사로 유명한 도시인데 가까운 곳에 제법 큰 호수가 있었다. 호수 가까이에 작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쓰려고 수리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곳의 유치원에도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 어린 영혼들의 시대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이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옛날처럼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버려지거나 개조된 교회당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한국인 사역자와 함께 멀리 떨어진 북쪽 해안가 몇 개 도시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섬겼던 이웃 나라 이주민 교우들을 다시 만나 진한 기쁨과 교제를 나눴다. 1년여 동안 많은 상황 변동이 있었지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다. 바닷가 언덕 전망 좋은 곳에 제법 큰 규모의 비어 있는 옛 교회당이 있었다. 지금 이 교회당을 회교사원으로 개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다.

또 다른 도시에서는 현지인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를 방문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 나라에서는 교회당을 신축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 도시의 교회당은 바닷가 조용한 주택가에 제법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다. 교회 설립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지인

다시 찾은 그곳에서 나는...

목회자와 젊은 일꾼들이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 주변의 작은 도시들로 젊은 개척 사역자들을 보내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은혜다. 마침 젊은 사역자가 교회당에 있어서 잠시 교제하고 교회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알려 달라고 했다. 먼 나라 한국에서 온 교우가 자기 교회의 기도제목을 묻는 것에 감동하면서 교회에 젊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개척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동행한 사역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다.

사역자의 집에 며칠 머물면서 그 도시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와 동행한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 예배와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뜨거움과 순수한 열정을 체험했다. 나는

그들의 기도동역자가 되기로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처음 살았던 도시로 이동해서 자주 연락하던 현지인 부부 집에 머물렀다. 이들은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살면서 모 든 것이 서툴고 어려울 때 가까이 친구가 되어 주었고, 이 도시에 들 때 마다 꼭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는 이들이다. 아직은 말이 서툴러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3년 동안의 짧은 선교지 삶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언어와 지리 등을 조금이나마 익혔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찾아다니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다. 앞으로 언어를 더 익혀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국에서 만났던 이 나라 유학생들과 현지인 친구들, 이웃 나라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 교우, 현지의 한국인 선교사와 가족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과 사역들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더 나아가 모든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 교우들이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탬 것이다. 한국에서 이를 지원하고 후원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두루 찾아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헌신할 것이다.



채현석 선교사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14 온누리신문

2019년 10월 6일(주일) | 제1264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시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현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틀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교회 커피 원두 납품업체 입

찰 공고

예산규모: 매월 250~300kg

납품장소: 서빙고 커피숍, 사이닝글로리,

양재 커피숍, 양지 커피숍

계약: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씩 2회 연장 가능)

접수: 2019년 10월 18일 17:00까지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경영지원팀

(02-3215-3176)

*기타 상세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참조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을

문의: 정상구 총무(010-4731-6514)

*홈페이지 참조: ommckr

Acts29 야구선교단 단원 모집

문의: 최완석 단장(010-8864-4676)

서빙고 전기시설을 직원 채용

모집: 서빙고 전기팀 정규직 직원 각 0명

업무: 간혹물(교회)전기시설및 소방관리등

자격: 전기설비 및 유지관리 경력자

(기능사 이상)

근무: 2교대 근무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

증문 1부(선택사항)

접수: bible81@onnuri.org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향: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CGNTV 정기후원을 위한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입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CGNTV가 개국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1. CGNTV의 사역은 온전히 성도님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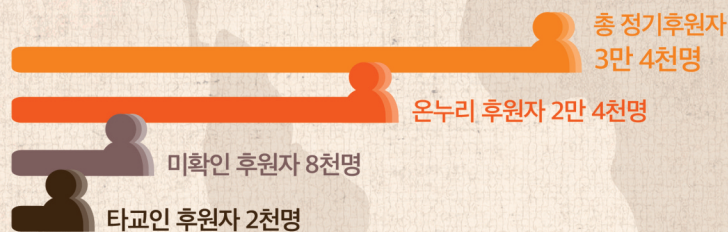
2018년 수입현황



2018년 지출현황



2. 2018년 후원자 분석 *2018년 12월말 기준



3. 서빙고 캠퍼스 후원 현황 (예시)



4. CGNTV 운영위원회는 올해부터 캠퍼스별 팀장과 팀원을 조직해서 독립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팀 제도를 통해서 현재 온누리 성도 후원율을 42%에서 100%로 달성하고 온누리 전교인이 “미디어 선교사”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교인 미디어 선교사가 되기(월 1만~2만원), 1:1후원운동과 가족이 동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5만 후원자 달성을 통해 한국교회에 50만 후원자가 세워지도록 적극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CGNTV의 미래 계획과 예상 비용

/ 미디어 라이브러리 : 35명 인력, 구축비용 약 37억원	/ 다음세대 콘텐츠 개발비 5억원
/ 장비교체 : 2025년까지 누적 총 50억원 소요	/ 선교사 및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3억원
/ 방송제작 전문 스튜디오 구축비 약 40억원	/ 해외 지사, 제작센터와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 비용 3억원
/ 신사옥 마련을 위해 매년 5억원 적립 (2025년까지 누적 25억원)	/ 제작비의 현실화 10억원
/ 글로벌 휴먼다큐 ‘킬링필드’ 제작비 5억원	

총 158억원

후원문의 02-796-2243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올림

함께!
미디어선교